

사순절 첫째 주일
THE WORSHIP SERVICE OF 1ST SUNDAY IN LENT

주후 2024년 2월 18일 오전 10시
인도: 김일선 목사

*입례 찬양 Opening Hymn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같이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찬 송 Hymn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어” (통일 36)	다같이
*교 독 문 Responsive Reading	124 번 사순절 (1)	다같이
*고백의기도 Prayer of Confession		다같이
*사죄의확신 Assurance of Pardon		인도자
*송 영 Gloria Patri	643 장 “세번 아멘” (통일 555)	다같이
*평화의인사 Peace Greeting		다같이
기도 Prayer of Intercession		한경준 장로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Mark) 1:9-15	염신철 집사
찬 양 Anthem	“사슴이 시냇물을”	찬양대
설 교 Sermon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김일선 목사
결단의찬양 Commitment Hymn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다같이
신앙의고백 Affirmation of Faith		다같이
주의 만찬 Communion	(집례: 김일선 목사)	다같이
봉 헌 Offerings	(특별 찬양: 루디아 중창단)	다같이
*송 영 Doxology	317 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통일 353) 1 절	다같이
*봉헌 기도 Offertory Prayer		다같이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파송 찬양 Sendig Hymn	505 장 “온 세상 위하여” (통일 268)	다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일선 목사

*표에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and if you are able.

고백의 기도

(자신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한 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다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매일같이 수많은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립니다.

이 시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두드리며 참회했던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오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용서하십시오서.”

우리의 악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하여, 더 이상 습관적인 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요,

또한 용서받은 자로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말/씀 TODAY'S SCRIPTURE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개역개정 막 1:14-15)

“After John was put in prison, Jesus went into Galilee,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God. ‘The time has come,’ He said. ‘The kingdom of God is near. Repent and believe the good news!’ ” (NIV Mark 1:14-15)

매/일/성/경/읽/기 DAILY BIBLE READINGS

날짜	2/18 (주일)	2/19 (월)	2/20 (화)	2/21 (수)	2/22 (목)	2/23 (금)	2/24 (토)
	출1	출2	출3	출4	출5	출6	출7
본문	눅4	눅5	눅6	눅7	눅8	눅9	눅10
	욥18	욥19	욥20	욥21	욥22	욥23	욥24
	고전5	고전6	고전7	고전8	고전9	고전10	고전11

수/요/ 찬/양/ 집/회 토/요/ 새/벽/기/도/회

수요 찬양집회 (2/21 오후7:30)	“성경의 모든 예언은” (베후1:12-21)
토요새벽기도회 (2/24 오전6:30)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지키시지 아니하면” (시127:1-5)

지난 주일(2/11) 말씀

“아무도 보이지 않고”(마가복음 9:2-9)

“왜 산에 오르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산악인 조지 맬러리 (George Mallory, 1886-1924)는 “Because it is there (거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성경이 쓰여졌던 시대에,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받았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산은 가장 하늘과 가까운 곳이며, 하나님과 가장 근접한 장소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일명)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배경도 바로 “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장차) 받으실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고 나서, 정확히 6일이 지난 시점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 그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The Transfiguration(변화산 사건)은 어떤 밝은 빛이나 신비로운 광경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라, The Resurrection(부활)과 The Transformation (변화/거듭나)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은 그 뒤에 나오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연결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즉, 변화산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예견해주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우리의 변화산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Because it is there”이 아니라, “Because He is here”이라는 믿음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 메/모